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그녀는 예쁘다
수상내역	대상
작가	이용주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p>3도 화상의 흉한 얼굴로 세상과 벽을 쌓아온 지우.</p> <p>그런 그녀가 인기절정 최고 스타강사 태석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희망가득, 드라마틱한 이야기.</p>

제목 : 그녀는 예쁘다

작품소개 : 3도 화상의 흉한 얼굴로 세상과 벽을 쌓아온 지우. 그런 그녀가 인기절정 최고 스타강사 태석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희망가득, 드라마틱한 이야기.

S#1. 지우의 집 / 낮

타닥타닥- 컴퓨터 자판소리 위로, 작은 평의 집이 보인다. 천천히 움직이는 카메라. 거실을 빼곡히 매운 여러 종류의 책들 보이고, TV대신 큰 책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책상엔 지우(27/여)가 원고지를 뒤적거리며 작업 중이고, 화면엔 뒷모습만 보인다. 그때 베란다로 연결된 창문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고, 원고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지우, 여전히 뒷모습만 보인 채 급하게 일어나 창문을 닫고 흩어진 원고지를 다시 모은다. 깔끔해진 원고지를 들고 다시 앉는데, 그만 실수로 옆에 있던 커피를 자판기에 쏟는다.

지우(E) (외마디 비명) 앗! 어떡해... (다행히 자판기 커버에만 쏟았다/커버 조심스레 벗겨내는) 그나마 다행이네.

지우, 커버를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가져가 물로 씻어낸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드는데 화장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이 비친다. 3도 화상의 자국... 흉한 얼굴이다. 순간 정적... 지우, 보기 싫었는지 거울에 물을 확 뿌리고, 거울 속 얼굴이 일그러진다.

S#2. 대형 서점 / 낮

서점 한쪽에 베스트셀러 칸.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석(30/남)의 책 보이고, 책 표면은 태석의 모습이 있다. 아주 힘차 보이는 포즈. 약간 떨어진 다른 쪽엔 성준(25/남)이 팔짱을 낀 채 느리게 서점을 서성인다. 그때 베스트셀러 칸으로 다가오는 여고생 3인방.

여고생1 (태석의 책 들며/오버액션) 이게 바로 오태석의 책...! 헐, 대~박. 야, 나 이거 살래.

여고생2 (준경의 눈빛) 대박이다... (책 들며) 어쩔 이렇게 얼굴까지 잘 생겼을까... 나도 강의 직접 듣고 싶다...

여고생3 야, 나도... 진짜 소원이 없겠다.

성준, 등 뒤로 여고생들의 얘기 들으며 씩 웃는다.

S#3. 거리 / 낮

성준, 한 손엔 태석의 책 들고, 통화 중이다.

성준 (내 일처럼 기쁘다) 그렇다니까요? 베스트셀러 1위! 완전 반응 대박이에요. 축하해요 형.

S#4. 대기실 / 낮

전화를 받으며 헤어스타일손질 받고 있는 태석.

태석 (호탕한 웃음) 하하. 고맙다 고마워. (밖에서 “오태석 씨~” 부르는 소

리) 네! 성준아, 나 이제 끊어야겠다. 그래. 이따 봐. (일어서고)

S#5. 다시 거리 / 낮

성준, 여운에 겨워 핸드폰 지극히 바라보다가 어깨 으쓱해져서 걸어간다. 가다가 책 한번 휘리릭 넘겨보는 성준. 책 탁! 덮는 모습 클로즈업되고,

S#6. 강연쇼 현장 / 낮

슬레이트 탁! 쳐진다. 방청객의 환호 소리.

MC (인사)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연쇼. 진행을 맡은 백지연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요즘 아주 정상자리를 찍고 계신 핫한 분이시죠. 스타강사 오태석씨입니다. (환호소리) 바로 모셔보죠.

엄청난 환호소리에, 태석, 한쪽에서 멋지게 등장한다.

점프.

강연에 매료되어 듣고 있는 방청객.

태석 (자유스런 분위기) 오늘 주제가 (화면 가리키며/‘청춘! 빛을 밝혀라’ 쓰여있다) 이것인 만큼, ‘청춘’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청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젊음? 혈기 왕성한 시기? (웃음소리/앞에 젊은 여자에게/약간 능글맞다) 어, 아리따운 여성분? 청춘이 뭐 같아요? (여자, 가우똥거리며 웃고)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원래 생각 안 나죠. 청춘이란! 꽃 봉우리입니다. 누가 청춘이 꽃이래요! 봉우리! 봉우리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주 강한 존재죠. 꽃은, 이미 피어있는 것입니다. 자만하기 쉬워요. 하지만 봉우리는 그렇지 않죠. 언제 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울 수 있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여러분이 ‘포기’라는 치명적인 농약을 뿌리시면 그 봉우리는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함으로써 마침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마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취업? (무기력해 보이는 남자 잡히고) 빠질 기미가 안 보이는 내 이 살들? (여자 둘, 자기 얘기인 마냥 서로 마주보며 웃고) 다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S#7. 지우의 집 / 낮

조그만 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지우. 앞에 있는 아담한 사이즈의 아날로그 TV에서 생방송 중인 태석의 모습이 보인다.

지우 (무기력) 꽃 봉우리? 허... (쓱쓱하게 웃고) 꽃이 피면 뭐해. 그 모습이 예쁘지 않으면... (나지막이) 여전히 이 모양일 텐데...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 라면 후루룩)

S#8. 강연쇼 현장 / 낮

태석 (어느새 막바지다) 꿈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실패해도 좋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고, 꽃을 피우기 위해 직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태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찢어질듯한 환호소리)

S#9. 방송국 복도 / 낮

태석, 힘차게 걸어가고 뒤에서 성준이 쫓르르 따라온다.

성준 (신났다) 형, 형! 오늘 (손 모양) 최고! 완전 짱이었어요. 지금 실감 다 형 애기에요.

태석 (뒤돌며) 나 오늘 쫘 멋졌냐?

성준 완전!!

태석 (성준에게 어깨동무하며 머리 형클어놓는/둘, 킥킥대며 오버액션, 아주 신났다)

S#10. 은행 앞 거리→서점 앞 거리 / 낮

은행에서 나오는 지우. 모자에 안경, 마스크까지 한 모습이다. 두툼한 지갑에 명세표를 넣는데 잘 안 들어진다. 끄끄대다가 결국 이것저것 꺼내고, 명세표를 넣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진 주민등록증이 떨어진다. 하지만 지우는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간다.

점프.

건다가 서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서점 유리창을 빼곡히 매운 태석의 책. 지우, 망설이다 들어간다.

S#11. 서점 / 낮

태석의 책을 드는 지우. 생각한다.

태석(E) 청춘이란! 꽃 봉우리입니다.

지우 (중얼) 웃겨...

책을 던져 놓는 지우. 맥없이 툭 떨어지는 책. 지우의 표정 위로,

태석(E) 에헤이!

지우 (깜짝 놀라 보면)

태석 (다가오며) 남의 책을 던지면 씹니까?

지우 (?! 눈 휘둥그레/진짜 오태석 맞아?? 보는데 너무 편한 복장이다...)

태석 (눈길 느끼고)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봐요? (하다) 아, 이거. (지우 민중 들고) 본인 꺼 맞죠?

지우 어?

태석 맞나보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요.

지우 사진... 보셨어요?

태석 예?? 아, 예 봤는데... (지우 눈치 보며) 에이~ 뭐 어때요. 어쨌든 찾아서 다행이네요. (주면)

지우 (받는다) ... 감사합니다.

태석 (머뭇) 근데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지우 ??

태석 (사뭇 진지하다) 제가 내일 저 사거리 대강당에서 강연하나 하거든요.

오전 10시. 무료예요, 무료. (약간 정적) 그러니까... 그냥 꼭 초대하고 싶어서요. 시간 있음 와요. (웃고) 아, 당황했다면 미안해요. 내가 오지랖이 좀 넓어서. 그럼... 내일 봐요. (활짝/민망한지 얼른 자리 뜬다)

지우 ... (멍하니 쳐다보는)

S#12. 대강당 전경 / 낮

이른 시간이라 비어있는 대강당. 여기저기 태석의 사진과 함께 플랜카드와 현수막으로 꾸며져 있다.

S#13. 대기실 / 낮

태석은 거울을 보고 있고, 성준은 태석 뒤에서 장난 중이다. 처음엔 혼자 하다가 점점 발전. 호탕하게 웃는 둘.

관계자(E) 오태석 씨!!

그때 관계자, 대기실에 들어오고, 태석, 성준 동시에 본다. 성준은 누군지 모르는 눈치. 태석은 금방 알아보고는 어! 하고 벌떡 일어선다.

관계자 (다가가며) 아유~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셨네. (악수하는)

태석 에이, 아니예요. 수고하십니다.

관계자 아유~ 뭘요. 오태석 씨야말로 수고하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태석 허허허. 좋은 일인데요 뭘.

관계자, 그때 옆에 성준 보고 어리둥절한 눈치.

관계자 아니, 근데. 여기 관계자의 출입금지인데 이분은 누구...

태석 (당황) 아하하하! (성준에게 어깨동무) 제 매니저요.

성준 (엥???/태석, 눈치 주자 “아 예~ 맞아요.” 하며 따라 웃는다)

관계자 또한 알겠다는 듯 따라 웃는다. 어느새 셋 다 바보처럼 웃고 있는.

S#14. 대강당 복도 / 낮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지우(어제와 같은 패션). 손목시계를 본다. 오전 8시 50분.

지우 (자책) 에휴, 내가 미쳤다고 여길 오냐. 내가 바보지. 거기다가 시간까지 착각했으니. 몰라, 얼른 집에나 가야지.

태석(E) 황지우 씨!!

지우 (!! 움찔/뒤돌면 저 멀리 태석 있고/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어제와 참 다른 모습이다)

태석 (뛰다시피 다가가며) 오셨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지우 아니, 아니예요~ 온 거.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화, 화장실이 급해서...

태석 (아쉬운 표정) 그래요?

지우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태석 민중에 떡하니 있던데요. 아니 근데, 안 바빠 보이는데 그냥 듣고 가죠?

지우 (당황) 예??
 태석 그냥 듣고 가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그랬어요. 사람이 축 쳐져 있어서.
 지우 워, 원래 그래요. (눈치 보며 가려 뒤도는데)
 태석 (잡고) 얼굴 때문에?
 지우 ... (뒤돈다)
 태석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적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세상에 저처럼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피할수록 후회만 쌓일 뿐이에요. 그냥 당당하게 다녀요. 네?
 지우 ... 대체...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릴 하세요? 저흰 어제 처음 봤고 생판 남남인데 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구요.
 태석 (당황) 어... (애써) 아, 거봐요~ 말 잘하네.
 지우 ... (그러다 획 돌아서 가 버리고)
 태석 (오지랖 넓은 자신을 자책한다)

S#15. 지우의 집 / 밤

작업 중인 지우. (번역가다) 열심히 타이핑하다가 갑자기 멈칫한다.

플래시백-#13

태석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그랬어요. 사람이 축 쳐져 있어서./얼굴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신 차리고 다시 작업하려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지우 (받고) 네. 네, 언니. 네?? 지금요?

S#16. 출판사 앞 / 밤

편집장 (원고지 봉투 건네고) 추가본이야. 미안해 번거롭게 해서. 전달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서.
 지우 (웃으며) 괜찮아요.
 편집장 미안하다. 조심히 들어가.
 지우 (끄덕끄덕)

S#17. 거리 / 밤

지우, 원고지 봉투 안고 걸어가다가 앞에 오는 고등학생 무리에 움찔한다. 기에 놀라서 고개 푹 숙이고 걷는데, 그만 어깨를 부딪친다. 지우, 꾸벅 인사하고 가는데,
 남고딩1 (짜증) 아이씨, 아줌마!!
 지우 !! (움찔/뒤돌고)
 남고딩1 사과를 하셔야죠, 네? 고개만 숙이면 다야?
 지우 미, 미안해요.
 남고딩1 (어이없다는 듯 웃는) 뭐래 재. (출씩대며 따라하는) 미안해요. (박장대소 하다가/한대 치려는 손짓) 아유! (마스크 가리키며) 그건 또 뭐냐, 열라 구리네.

남고딩2 (진지) 야, 못 생겼나 보지. 아, (출씩) 못 생기다 못해 흉측한가?
고등학생 무리, 숨넘어갈 듯 웃어댄다. 지우,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손에 힘 들어가는 모습 클로즈업. 그때,

태석(E) 야!!

하는 소리 들리고, 지우, 뒤돌고, 일동, 시선 집중된다.

태석 (지우 옆에 서며) 뭐야 니들. 뭐하는 짓이야?

남고딩1 댁이야 말로 뭐하는 거세요? (정색)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 뒤지고 싶냐? 어??

태석 (열 받는다) 아나... 이것들이.

하고 다가가려는데 지우, 놀라면서 얼른 안으며 막아선다. 그 때문에 원고지 봉투 땅바닥에 툭 떨어지고, 태석, 당황한다.

지우 (안돼요...!하는 눈빛/절레절레)

태석 (눈빛 흔들리는)

점프.

함께 걷는 둘. 지우 손엔 역시 원고지 봉투 들려있다.

태석 (지우 보다가) 다친 데는요?

지우 (보다가) 없어요.

태석 요즘 애들 무서워요. 뉴스 못 봤어요? 아니 왜 시비는 붙고 그래요?

지우 (발끈) 아니...! (말하기 싫다) 아니에요.

태석 (괜한 말 했나.../화제전환) 근데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지우 출판사예요.

태석 출판사?? 작가예요?

지우 아니요. 번역하는데, 추가 원고가 있다고 해서.

태석 아~ 번역. 좋은 일 하시네. (웃음)

지우 (웃음) 그러고 보니 오태석 씨는, 항상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시네요.

태석 (당황) 예?? (특유의 호탕한 웃음) 아, 그래요? 내가 그랬나?

지우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 강연은 잘 했어요?

태석 그럼요. (갑자기 생각났다) 저... 근데 아까 낮에 한 말은, 그게...

지우(ol) 팬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태석 아...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신경 쓰인다)

지우 어, 저기에요 저희 집.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태석 (끄덕/멈추고) 그럼 난 이만 가볼게요.

지우 네?? (지우 집 쪽 방향 가리키며) 이 방향 아니었어요?

태석 (웃으며) 아니요. (반대 방향) 이 방향이요.

지우 (미안) 죄송해요. 괜히 번거롭게... 저는 같은 방향인 줄 알았어요.

태석 (손까지 저으며) 에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죠? 그럼 이만 가볼게요. 또 봐요. (가는)

지우 ...

S#18. 인터뷰 현장 / 낮

소란스러운 인터뷰 현장 스튜디오. 다들 바쁜 와중에, 태석, 한껏 멋지게 차려 입고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듯, 활짝 웃으며 윙크한다. 보면, 성준, 애절하게 파이팅 보내는 중이다.

점프.

한창 물이 오른 인터뷰 현장.

태석 (뒤통이 울기 시작하며 호탕하게 웃으며) 아하하하! 맞아요.

리포터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오태석 씨의 학창 시절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요. 어떠셨나요?

태석 (갑자기 점잖아진) 음... 사실 그렇게 기억에 남진 않아요.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다 잃었는데 어린 마음에 상심이 컸는지, 맨날 우중충하게 다녔었거든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이 많이 낯설 거예요.

리포터 (측은하다)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태석 (손 내저으며) 에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때 태석, 고개 돌리다가 성준과 눈 마주치고, 성준, 완전 슬픔... 나라 잃은 표정이다. 태석, 피식 웃다가 괜찮다며 눈짓 보낸다.

S#19. 스튜디오 앞 벤치 / 낮

성준 (집요하다)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태석 (이제 슬슬 질린다) 아, 그렇다니까. 몇 번 말해.

성준 그래도... 형 그 얘기만 나오면 하루 종일 힘이 없으니까...

태석 (피식) 그건 예전이고. 이젠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성준 ... (진지하다) 기억나죠, 형? 저 고등학교 때, 문제아소리 듣고 싸움에 욕만 할 줄 알았던 꼴통이었잖아요. 근데 기적처럼 형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따끔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는데, 형은 달랐어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나쁘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형 덕분에 사람 된 거예요. 형은 제 인생에서 평생 모셔야 할 은인이예요.

태석 (감동...) 야... 백성준.

성준 그러니까... (다시 귀요모드) 형 절대 우울해지면 안돼요. 알았죠? (그러다가 달려들어 꼭 안기는)

태석 (피식) 에휴, 그래 알았다. (성준 머리 형클어놓는)

S#20. 주차장 / 저녁

하늘에서 카메라 비추고, 어느 한적한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차바퀴 클로즈업. 바퀴 멈추면, 그 안엔 태석이다. 뭔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

S#21. 납골당 / 저녁

납골당 안으로 들어오는 태석. 가만히 응시하더니 한 유골 보관함 앞으로 다가간다. 그 안엔 어린 태석과 부모님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있고, 태석은 무표정하게 유리창만 만지작거린다.

태석 아버지, 어머니. 3년 만인가? 너무 오랜만에 왔네... 나 성공한거 위에서 봤어요? 봤겠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새도 없었던 거 보면 많이 바쁘긴 바빴나 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바쁜 게 성공한 거라고. 이제야 와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올게요.

머뭇거리다가 느릿느릿 나가는 태석. 고개를 드는데, 깜짝 놀란다. 보면, 저 멀리 지우가 백합을 들고 서 있다.

S#22. 납골당 밖 벤치 / 저녁

태석 (정적 흐르다가) 이게 무슨 우연인지... 누구 보러 왔어요?

지우 ... 부모님이요. 오태석 씨네요?

태석 ... 저도요.

지우 (조심스레)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태석 (썩썩한 웃음) 중학교 때요.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요. 애석하게도, 저만 혼자 살아남고...

지우 (끄덕끄덕/태석 보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얼굴이 이런지?

태석 네?? 어... 궁금했다기보단...

지우(ol)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화재가 났었어요. 엄청 크게. 그래서 이래요. 그때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태석 그랬구나... (애써) 아, 근데, 여기 있으니까 분위기 참 이상하네. 그만 갈래요?

지우 (끄덕) 네.

태석 (일어서고) 가요.

지우 아, 전 저쪽으로 가야돼요. 정류장이 저기 있거든요.

태석 뭐하러 그래요?

지우 네?

태석 같이 가요.

S#23. 차 안 / 밤

태석, 운전 중이고 지우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

태석 많이 힘들었겠네요.

지우 (보며) 뭐가요?

태석 그냥... 든 생각이예요. 웬지 그래보여서.

지우 오태석 씨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평소랑 다르게 많이 우울해 보여요.

태석 (웃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 지우 씨라면 어떨까... 물론 힘들겠지만, 천천히 잊어가는 건 어때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우 씨, 그

정도면 아직 젊은 축에 속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나 본데,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건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의지예요. 생각을 바꾸고, 내면을 바꿔요. 뭐, 일종의 자기최면이에요.

지우 또 그 얘기에요?

태석 그럼 어떡해요. 볼 때마다 생각나는데. 단순 직업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흔한 건줄 알아요? 사람이 마음이 쏠려야 말로도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니까, 잘 생각해 봐요.

지우 ...

태석 그럼 뭐... 친구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우 얼굴 이렇게 되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멀어졌어요. 친구는 물론이고요. 몰라요. 그냥 이젠 익숙해요. 워낙 오래돼서. 이렇게 누군가하고 길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고 이후로 오태석 씨가 처음이에요.

태석 (끄덕끄덕/웃으며) 이야... 이거 영광인데요?

지우 (웃고)

태석 (활짝 웃는)

S#24. 지우의 집 / 밤

책상에 엮드린 채로 생각에 잠긴 지우.

태석(E)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나 본데,

플래시백-#22

태석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건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의지예요. 생각을 바꾸고, 내면을 바꿔요. 뭐, 일종의 자기최면이에요.

지우 ... (멍하니 눈만 깜빡이는)

S#25. 태석의 방 / 아침

침대에서 골아 떨어져 있는 태석. 그때 핸드폰 진동 요란하게 울려대고, 태석, 짜증내면서 진동 끄고 이불 머리끝까지 확 덮고 다시 잔다. 근데 3초 있다가 다시 울리는 핸드폰 진동. 태석, 이불 안에서 괴로워한다. 끄끄 끄는 소리. 그러다가 이불 확 내치면서 벌떡 일어난다. 핸드폰 진동 끄려는데 잘 보니 전화다.

태석 (비몽사몽) 여보세요...

성준(E) 형!! 어디예요!! 빨리 와요!!

태석 (응...?? 뭐지?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났다. 헉!!! 잠 확 깬다) 헐, 야! 지금 몇 시야?!!

성준(E) (미치겠다/애타는) 9시요 9시. 1시간 만에 올 수 있어요? 한 번도 늦은 적 없던 사람이 왜 늦나 했더니, 자고 있었어요?!!

태석 (충충 뛰며 양말 신으면서)야, 미안하다 미안해. 어제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와서 오자마자 골아 떨어졌어. 최대한 빨리 갈게. 미안해! (성준, 뭐라뭐라 말하지만 끊어 버리고 핸드폰 침대 위로 내동댕이) 아이씨... 미치겠네.

S#26. 거리 / 아침

손목시계 보며 부랴부랴 달리는 태석. 좀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는 지우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태석,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다.

태석 (가방 뒤적거리는) 내 지갑...!! 아이씨... (미치겠는 표정인데, 저 멀리 지우 발견하고) 어!! (달리며) 황지우 씨!! 황지우 씨!!

지우 ?? (보는데)

태석 (달려와서는 숨차하며/다짜고짜) 돈 있어요?

지우 네?? (어이없음)

태석 (손에 있는 지갑 발견하고) 있으면 빨리 잡시다.

태석, 지우 나머지 한 손잡고 뛰기 시작한다. 손잡는 모습 클로즈업되고, 영문 모르겠는 지우, 황당하다.

지우 (달리며) 지금 뭐하는 거예요??!

태석 너무 급해서 그래요! 지금 몇 시예요?

지우 아니, 나랑 장난해요?? 뭐하는 거냐니까요!!

태석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강연에 늦게 생겼는데??

지우 (완전 대박 황당) 하,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차는 어찌고요!

태석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갑자기 멈추고 지우 어깨 잡으며) 하루만 빛 좀 집시다. 네? 부탁해요. (그리고는 다시 뛰기 시작)

지우 오태석 씨!! 오태석 씨!!!

목소리 울린다. 그 모습에서, 화면 검은색으로 탁 아아웃되고, 덩달아 고요해진다.

S#27. 지우의 집 / 낮

화면 서서히 밝아지면, 컴퓨터 자판 치는 손 보이고, 햇살이 짙 비추고 있는 베란다 창문 보인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커튼. 카메라 옆으로 움직이면, 지우의 옆모습 보이고, 마스크를 안 한 모습이다. 엔터키 누르는 모습 클로즈업.

지우 다했다!! (기지개 편다/바로 어딘가로 전화하는) 언니! 네, 다 했어요. 메일로 보낼 테니까 확인해요. 네~ (끊고/휴가분하다는 듯 웃는)

지우(NA) 그 후로, 3개월이 지났다.

S#28. 몽타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지우. 마스크는 여전하지만 모자와 안경은 벗었다. 사람들과 얘기도 하며 즐거워 보이는 모습.

지우(NA) 때론, 짧은 만남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태석, 방송국 복도를 걸으며 옷모양새를 단정히 한다. 점프, 유쾌하게 강연을 하는 모습. 방청석에서 성준의 모습도 보인다.

지우(NA)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스타강사는 오늘도 또 하나의 희망을 전달한다. 물론, 나도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고 말이다.

예전보다 자신 있어진 발걸음으로 원고지 봉투를 들고 걷는 지우. 그때 멈춰서는,

발 클로즈업. 보면, 태석이다.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태석. 지우를 보며 웃는다.
지우, 역시 웃는다.

지우(NA) 난 뭐든지 안 되는 놈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울 필요도 없고,
세상에 고개 숙일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냥 나 자신에게 충실 하라.
둘,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모습 옆 방향으로 카메라 비춘다. 태석, 웃고 있으면, 지우
역시 웃고 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모습이다. 얼굴엔 화상 자국도 없고, 마스크도
없다. 그냥, 아주 예쁜 얼굴의 모습이다.

지우(NA)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을 바꾸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인간은 하루에
열 번도 바뀌는 동물이니까. 뭐, 일종의 자기최면이랄까?

-끝☆